

꾸지뽕잎차 신품종 '소품' 21년만에 개발

전남농업기술원, 잎 크기 작아 일손 덜어

전남도농업기술원이 꾸지뽕잎차 제조에 적합한 신품종 '소품'을 육성, 관심을 끌고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는 24일 "가지 발생이 많고 잎의 크기가 일반 꾸지뽕보다 3분 1에 불과한 신품종인 '소품'을 육성했다"고 밝혔다.

영산강 자전거 축전

27일 나주시 열린다

나주시는 24일 "2013 영산강 자전거 대축전이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영산강둔치 체육공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주최하고 나주시자전거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자전거 이용 불 조성을 통해 시민건강 증진과 자전거로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축전에는 동호인 600명과 일반인 350명, 내빈 50명 등 모두 1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자전거 퍼레이드는 10km 일반인 코스와 25km 전문동호인 코스로 각각 나눠 열린다.

10km 일반인 코스는 나주 영강동 영산포 체육공원(출발)~나주대교(반환)~영산포 체육공원(도착) 순으로 이뤄졌다. 25km 전문동호인 코스는 영산포 체육공원(출발)~나주대교~승촌보~강변 저류지~영산포 흥어의거리~영산포 체육공원 순이다.

참가비는 없으며 선착순 접수자에 한해 기념 면티셔츠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부대 행사로 자전거를 소재로 한 초·중학생 그림그리기 대회도 열린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혔다.

원예연구소 이야성 박사가 지난 91년 신품종 육성에 들어간 지 21년 만의 성과다.

꾸지뽕은 최근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주목되는 나루로 약용은 물론 뽕잎차, 잼 등 산업화가 활발히 추진되

고 있다. 이 신품종은 잎 크기가 작아 차 제조 때 자를 필요가 없다. 일손을 덜 수 있는데다 고품질 차를 생산할 수 있다.

뽕잎 생산량도 990m²에서 180kg으로 일반 품종보다 5배나 많다. 꾸지뽕은 잎, 줄기, 뿌리, 열매 등에 당뇨, 고혈압, 부인병, 항암 치유 성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예연구소는 신안군과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7년간 15만주(180ha)

방 효과가 있는 '루틴' 성분이 일반 뽕잎이나 녹차보다 수십 배 많다. 폴리페놀, 카테킨, 비타민C 등 기능성 성분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전남과 경남 등 남해안에 자생하는 꾸지뽕은 쌍떡잎식물 뽕나무과의 낙엽활엽수로, 수요에 비해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크게 부족한 상태다.

원예연구소는 "신품종을 국립산림품종 관리센터에 품종보호 출원하고 새로운 소득자원으로 농가에도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멧돼지 때문에"… 고흥에 콘크리트 묘

묘 전체를 회색 시멘트로 덮어버린 '콘크리트 묘'가 등장했다.

〈사진〉

후손들은 묘지 관리의 어려움과 멧돼지에 의한 훼손으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주민이나 행정기관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24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한마을에는 12기 가족묘 가운데 9기의 봉분과 바닥 등이 온통 시멘트로 덮였다. 광주에 거주하는 묘주는 묘지를 돌보기 어려운데다 멧돼지로 인해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자 가족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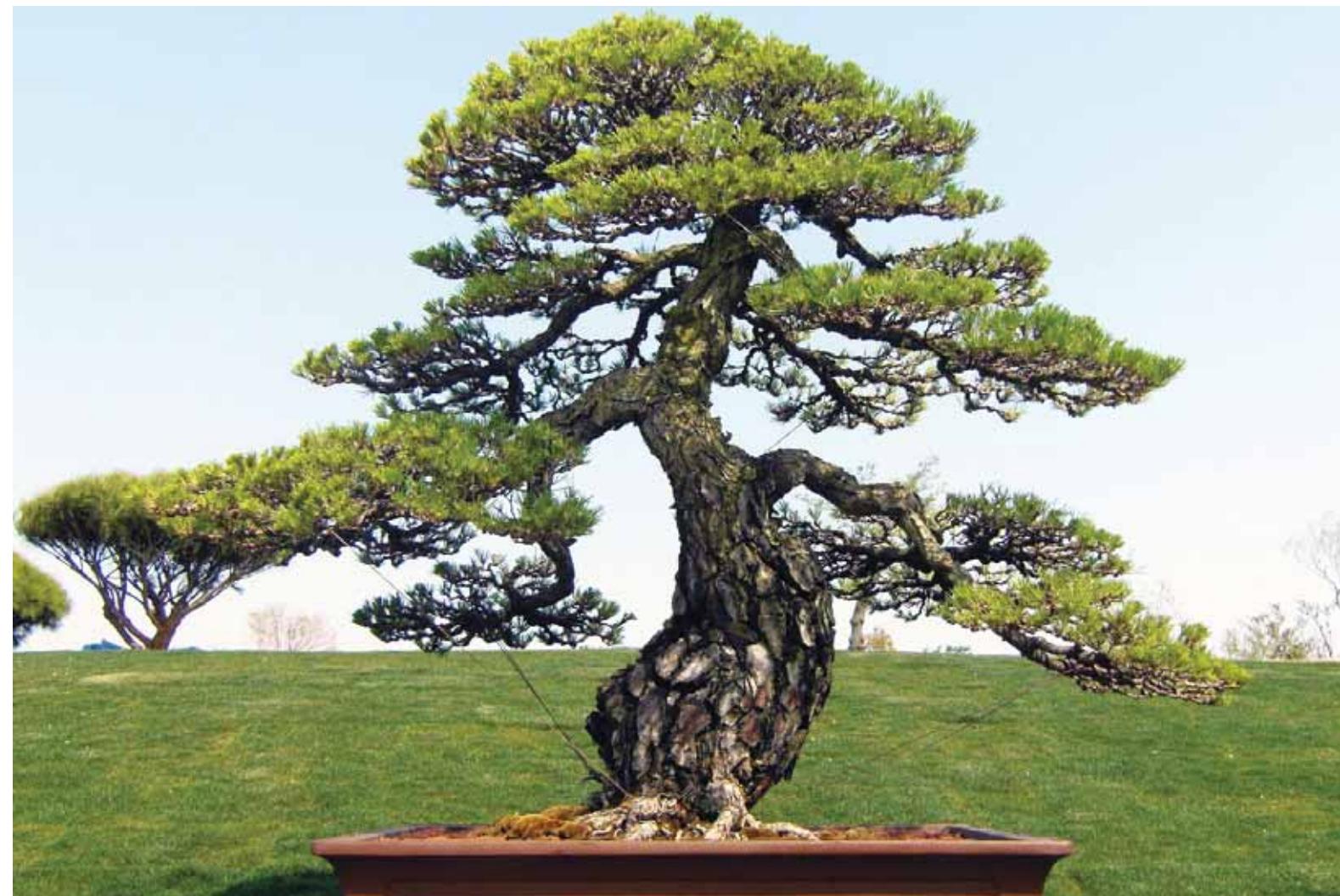
조만간 콘크리트 위에 인조잔디를

입힐 방침이다. '시멘트 묘'와 관련 고흥군에서는 묘지법에 봉분에 대한 조항은 아예 없고 다만 바닥에 대해서는 잔디나 수목으로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어 행정조치 여부를 검토중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입장이야 이해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조상을 모시려면 차라리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가족 간에서도 입장 차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묘지는 얼마전까지 잔디가 심어져 있었지만 10여일 전 문중의 한 자손이 와서 이 같은 공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흥=주각중기자 giju@



2억짜리 곱슬분자

역대 분자는 3점이다.

개장 5일째인 24일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에 2억원짜리 곱슬분자를 비롯해 역대가 넘는 분재가 자리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분재는 한국분재조합원들의 소장품들로 목본류 150점과 초본류 150점 등 300여 점으로, 이 가운데

〈순천시 제공〉

강진, 수산물 판매 촉진 포장재 지원

저온저장고 보급 사업도… 유통 비용 절감 기대

강진군이 청정해역 강진만의 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수산물 포장재 및 저온저장고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강진군은 24일 "올해 2억원을 투여 신규로 저온저장고 18동, 친환경 김 생산, 전복, 어촌체 등 12곳에 스티커, 아이스팩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유통비용 절감에 도움

을 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 김, 매생이 등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 수산물의 차별화 전략에 따라 군은 향후 낙지, 개볼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포장재를 개발하고 지역 특색을 담은 디자인을 개발, 브랜드로 키울 방침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구례,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사업 선정

3년간 도비 6억 지원받아

밝혔다.

구례군이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지원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3년간 도비 6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군은 지원금과 자체 예산 등 20억원을 투입해 구례읍시가지의 가로에 대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나설 방침이다.

구례군은 24일 "노후화돼 도심기능을 잃은 채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구례읍을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명품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전체 시가지 중 군청 앞 로터리에서 경찰서 앞 로터리까지 770m 구간을 1단계 사업지구로 우선 선정했으며, 전남도의 녹색 디자인 거리 집중지원정책에 따라 북문로와 동문로도 2·3단계로 나눠 점진적으로 공사를 벌인다.

녹색 가로환경 조성, 지역 상징요소 개발, 포켓공원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 도심 속에서 지역 문화와 여유를 느끼고, 소통과 화합을 위한 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구례=이진택기자 ik5826@

제남 지방세 징수팀 가동

담양군이 군과 읍면의 지방세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징수반을 운영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전액 징수를 목표로 고강도 징수 활동에 나섰다.



“4대악 균절·시민 눈높이 치안 최선”

김영창 광양경찰서장

정직이라 는 이 3가지 원칙을 통해 전 직원이 활기찬 직장분위기 속에 근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서장은 나주 출신으로 전남 대를 졸업한 뒤 1988년 간부후보 36기로 경찰에 입문후 2011년 총경으로 승진해 광주청 보안과장, 청문감사담당관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김순자 여사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그는 취임사에서 "정성·정확·정직"이라는 3가지 원칙을 통해 전 직원이 활기찬 직장분위기 속에 근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양관광 중심도시 목포로 오세요



만호	(유)에이티	유 휴 먼	목포농수산물도매시장	목포원예농업협동조합	목포농업협동조합	한국전력목포지사	한국농어축산공사영산강사업단	예총목포신안지호	해찬의원	동신대학교목포한방병원	목포시의료원	(주)근화	가산토	(주)부국	신안관광(주)신안비치호텔	씨월드고속웨리	(주)행남
대표이사 이민업	대표이사 최철윤	대표이사 김경훈	임직원 1동	임직원 1동	임직원 1동	임직원 1동	임직원 1동	임직원 1동	임직원 1동	임직원 1동	임직원 1동	대표이사 김호	대표이사 김건호	대표이사 김건호	대표이사 이건상	회원이사 이현숙	회원이사 김경